

中 독주 견제... "단체전서 리우 골드 노린다"

리우올림픽 종목 ① 탁구 최대 남녀 6명 출전 가능 단식·단체전 금 4개 걸려

탁구는 라켓을 이용해 탁구 테이블에서 공을 쳐넘기며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다.

1880년대 영국 상류층에서 오락으로 즐기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에는 테이블 중앙에 책을 네트처럼 세워놓고 두 사람이 책 한 권씩을 라켓처럼 잡고 공을 쳐넘기는 방식이었다. 이후 탁배 상자 뚜껑으로 만든 라켓과 삼페인의 코르크 마개로 만든 공이 사용됐고, 이것이 현대적인 탁구의 형태로 발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올림픽 입문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이었다. 탁구는 구기 종목 가운데 가장 가볍고(2.7g), 가장 작은(40mm) 공을 사용한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까지는 남녀 단식과 복식 등 4개의 세부 종목이 있었는데, 2008년 베이징 대회부터는 복식이 빠지고 남녀 단체전이 포함됐다.

리우 올림픽 역시 남녀 단식과 단체전 등 4개 금메달이 걸려 있다. 그러나 탁구는 중국의 독주대다. 1988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친 올림픽에서 나온 28개의 금메달 중 24개를 중국이 휩쓸었다. 이에 중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여러 규정 개정이 이뤄졌다. 2000년 시드니 대회까지는 지름 38mm 공을 사용하다가 그 이후에는 '리저블'이라 불리는 40mm짜리 공이 사용됐다. TV 중계와 관중의 시선을 고려한 조치였지만, 공의 변화를 통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시드니 이후부터는 21점이었던 세트 점수를 11점으로 대폭 낮췄고, 이에 개인전 단식은 3세트를 먼저 이기면 승리하던 방식에서 7전4선승제로 바뀌었다.

하지만 중국은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4개 금메달을 모두 가져가는 등 바뀐 환경에도 흔들림 없는 최정상의 자리를 지켜왔다. 리우 올림픽에서는 약 100년간 사용해 온 기존 셀룰로이드 탁구공 대신 작년 7월부터 공인구가 된 플라스틱 탁구공이 사용된다. 셀룰로이드가 발화성이 있다는 것이 이유지만, 이 역시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재질이 다르고 공의 크기도 미세하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중국 다음으로는 탁구에서 금메달을 많이 땀다. 1988년 개인 단식의 유남규와 여자 복식의 양영자-현정화에 이어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유승민이 남녀 단식 금메달을 목에 거는 등 금 3개, 은 3개, 동 12개를 획득했다. 그러나 중국의 난공불락에 2004년 유승민 이후 금메달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2008년 베이징 대회에서는 남녀 단체전에서 동메달 1개씩만 따냈고, 2012년 런던 대회에서는 남녀 단체전의 은메달이 전부였다. 탁구는 국가별로 최대 6명(남자부 3, 여자부 3)이 참가한다. 단체전은 모두 출전하지만, 남녀 단식은 이 가운데 2명이 나갈 수 있다. 우리나라는 남녀 단체전 모두 메달권 진입을 노리고 있다. /연합뉴스

'수비 달인'의 마지막 태극마크

리우올림픽 기대주 ① 탁구 주세혁 "아름답게 퇴장하고 싶다"

대표팀 만형... "메달 꼭 딸 것"

"마지막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아름답게 퇴장하고 싶습니다." 한국 남자탁구 국가대표팀의 '만형' 주세혁(36·삼성생명)에게 리우 올림픽은 그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올림픽이다.

주세혁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처음 출전했고, 2008년 베이징 대회에서는 대표팀에 들어가지 못했다. 절치부심 끝에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다시 태극마크를 달았고, 이번에는 대표팀 만형으로서 후배들을 이끌고 메달 사냥에 나선다.

그는 "아름답게 퇴장하고 싶다"며 올림픽에 대한 바람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 경기 한 경기의 의미가 남다른 것 같다"고 했다. 올림픽으로서서는 물론, 태극 마크를 달

고 뛰는 국제대회로는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공격을 커트로 막아내는 '수비 달인'으로 잘 알려진 주세혁은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단체전 은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2012년 런던 대회 단식에서는 제대로 힘도 못써보고 32강에서 탈락했다.

탁구는 중국이 난공불락이다. 규정을 이리저리 바꿔도 중국은 올림픽에서 4개 전 종목의 금메달을 휩쓸고 있다. 비슷한 수준의 국가가 준비해 메달권만 진입해도 그나마 다행인 것이다.

주세혁은 "단체전이 메달 확률이 더 있기 때문에 단식보다는 단체전에 더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림픽에 처음 출전하는 정영식(23·KDB대우증권), 이상수(25·삼성생명)와 단체전에 나선다. 단식에도 출전하는 그는 이번에는 제대로 한 번 해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아테네와 런던에서는 실력 발휘도 못하고 저서 아쉬웠다"며 "이번에는 긴장감과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즐긴다는 마음으로 단식에 나설 것이다.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해서 감동을 주는 경기로 메달을 따는 것이 목표이자 소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주세혁
● 출생 1980년 1월 20일(서울)
● 소속 삼성생명
● 주요 경력 및 수상
2010 제9회 전국체육대회 남자일반부 단식 금메달
2010 광주아시아인간체전 은메달 단식 동메달
2011 월드팀드 남자부 준우승
2011 남자월드컵 남자부 3위
2011 MBC탁구최강전 남자부 챔피언결정전 우승
2012 국제탁구연맹(ITTF) 브라질오픈 남자단식 준우승
2012 제30회 런던올림픽 단체전 은메달
2014 제1회 인천아시아인간체전 은메달 단식 동메달 /연합뉴스

'평창 희망' 윤성빈 스킨레톤 월드컵 2연속 銀

스켈레톤의 윤성빈(23·한국체대)이 다시 한번 월드컵 은메달을 따냈다. 윤성빈은 17일 미국 유타주 파크시티에서 열린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 2015-2016시즌 월드컵 5차 대회에서 1, 2차 시기 합계 1분38초73의 기록으로 2위에 올랐다. 이로써 윤성빈은 4차 대회에서 이어 두 번 연속 은메달을 따는 쾌거를 이뤘다. 앞서 1차 대회에서 12위에 올랐던 윤성빈은 2차에서 4위를 차지한 뒤 3차에서 동메달, 4차에서 은메달을 따.



윤성빈

많은 기대를 모은다. 한국 봅슬레이는 4인승 경기에서 역대 최고 기록인 11위를 차지했다. 원윤종(31)-오재한(25)-김경현(22)-김진수(21) 조는 1, 2차 합계

1분36초86으로 11위에 자리했다. 11위는 한국 봅슬레이 4인승 부문의 월드컵 역대 최고 성적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월드컵 4인승 최고 성적은 2014-2015시즌 캐나다 켈거리에서 열린 월드컵 2차 대회의 13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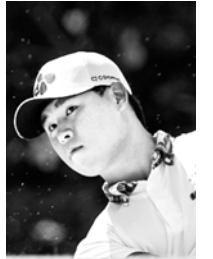
윤성빈은 썰매의 불모지였던 한국의 스킨레톤 역사를 새로 써내려가고 있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16위에 오른 윤성빈은 지난 시즌 월드컵에서는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그는 트랙에 대한 적응도가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썰매 종목의 특성상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도 있을 것으로

전날 5차 대회에서 18위에 올랐던 한국팀은 하루 만에 순위를 7단계 끌어올렸다. 1차 시기에서 48초32로 6위로 치고 올라간 대표팀은 2차 시기에서 48초54로 아쉽게 13위를 차지하며 종합 11위에 만족해야 했다. 세계랭킹도 16위에서 15위로 한 단계 올랐다. /연합뉴스

마지막 홀 이글... 김시우, 선두와 2타차

소니오픈 3라운드 단독 4위

김시우(21·CJ오쇼핑·사진)가 마지막 홀 이글 한방에 힘입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생애 첫 우승의 기회를 잡았다.



김시우

버디를 추가한 김시우는 13번홀(파4)에서 보기를 적어 내 주눅했다. 하지만 17번홀(파3)에서 4.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 분위기를 바꾼 김시우는 18번홀(파5)을 이글로 장식했다. 187야드를 남기고 친 두 번째 샷을 그린 위에

김시우는 17일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라이 컨트리클럽(파70·7044야드)에서 열린 소니오픈 3라운드에서 보기는 1개로 마크 이글 1개, 버디 4개로 5타를 줄였다. 중간합계 14언더파 196타를 친 김시우는 공동 선두 잭 블레어, 브랜트 스네데커(이상 미국·16언더파 194타)보다 2타 뒤진 단독 4위에 올랐다.

8번홀까지 타수를 줄이지 못하던 김시우는 9번홀(파5)에서 칩샷을 홀 30cm에 붙여 가볍게 버디를 잡은 뒤 힘을 내기 시작했다. 10번홀(파4)과 12번홀(파4)에서도

버디를 추가한 김시우는 13번홀(파4)에서 보기를 적어 내 주눅했다. 하지만 17번홀(파3)에서 4.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 분위기를 바꾼 김시우는 18번홀(파5)을 이글로 장식했다. 187야드를 남기고 친 두 번째 샷을 그린 위에 올린 김시우는 4m 남짓한 이글 퍼트를 깨끗하게 성공시켜 3라운드를 마쳤다. 뉴질랜드 교포 대니 리(26)는 공동 13위(10언더파 200타), 재미동포 케빈 나(33)는 공동 23위(9언더파 201타)에 자리했다. 최경주(46·SK텔레콤)와 노승연(25·나이키골프)은 공동 52위(6언더파 204타)다. /연합뉴스

산행안내

해의 개재불가

1월 22일(금)
▲광주금요산악회 1월 22일(금) 변산 관음봉산행, 광주역(두암동 홀플러스경유) 08:00 *다음카페 광주금요산악회 ☎ 010 9860 0173, 010 3821 9090

1월 23일(토)
▲동광주밀레산악회 1월 23일(토)~24일(일) 제주도 올레길 및 한라산 눈꽃산행/1박 5식(회파티 포함), 산행 참가비 160,000원, 선착순 40명 마감/ 동광주 밀레점 06:30, 광천동 터미널 건너편 LG 베스트샵 06:40, 하남 80M 신한은행 07:00 *다음카페 동광주 밀레 산악회 ☎ 010 3614 5800

▲뉴광주4050산악회 1월 23일(토)~24일(일) 제주도 한라산 눈꽃산행, 월드컵 5:50, 광주역 6:10, 문예후문 6:20, 비엔날레 6:30 *다음카페뉴광주4050산악회 ☎ 010 9221 4508, 010 8393 791

1월 24일(일)
▲산과회망산악회 1월 24일(일) 전남 구례 견두산 산행, 광주역 08:00, 문예회관 후문 08:10 *다음카페 산과회망산악회 ☎ 010 4603 7681

▲광주산가족산악회 1월 24일(일) 전북 무주 덕유산 향적봉 눈꽃 산행, 영주체 06:30, 대인광장 06:40, 동광주 홈 07:00 *다음카페 광주산가족산악회 ☎ 010 6886 9106

▲광주산사모산우회 1월 24일(일) 전북 완주 대문산(100대명산), 영주체마트 주차장 06:30, 문흥동 청소년수련관 앞 07:00, 비엔날레 주차장 07:20, 문화예술회관 후문 앞 07:30 *다음카페 광주산사모산우회 ☎ 010 3603 8370, 010 3606 8081

▲광주알프스산악회 1월 24일(일) 통영 천개산,백방산산행, 영주체육관 07:30, 대인광장 07:50, 각화동홀플러스 08:00 산행후 목욕준비 *다음카페 광주알프스산악회 ☎ 010 8743 8244

▲광주요산회 1월 24일(일) 지리산 둘레길테마산행 "제3탄" (제4.5구간), 무각사 06:30, 문예정문 06:35, 광주역광장 06:50, 동광주 홈 07:00 *다음카페 요산회 ☎ 010 3641 7300, 010 8797 8177

▲광주차오름산악회 1월 24일(일) 제8차 완도 조약도(약산도)삼문산(397m) 조망 산행, 비엔날레주차장 입구 07:00, 롯데백화점 07:10, 광주시청 07:25, 하남 무등산랜드 앞 07:40 *다음카페 광주차

오름산악회 ☎ 회장 010 3185 4435, 산행이사 010 4615 5810

▲광주자연보전답사회 1월 24일(일) 괴음산-송등산-호구산(경남 남해군), 영주체육관 07:40, 무등경기장 08:00, 동광주홀플러스 08:20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답사회 ☎ 010 3666 3291, 010 5658 0185

1월 30일(토)
▲철도산악회 1월 30일(토) [무박2일] 무궁화호타고 떠나는 태백산등반·하이원스키장투어 기차여행 광주역 23:00 출발 *다음카페 철도산악회 ☎ 515 7788, 010 9715 1000

2월 6일(토)
▲광주금당산악회 2월 6일(토) 국립공원 무등산, (집결지)-중심사 시내버스 종점 위 팔각정 09:00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1월 31일(일)
▲문흥백두산악회 1월 31일(일) 진안 구룡산(국내최장구룡대리), 문흥동백두산악매장 07:30, 북구미래야동행원 07:35, 일곡동우체국 07:45, 비엔날레주차장도로가 (구도교육청앞도로) 08:00 *다음카페 문흥백두산악회 ☎ 010 3602 2098

▲광주청정산악회 1월 31일(일) 월출산

산행, 영주체육관 07:20, 봉선동 한일병원 07:30, 산수오거리 07:35, 광주역/앞 07:40, 운암동(문화예술회관)후문 07:50, 비엔날레주차장 08:00 *다음카페 광주청정산악회 ☎ 010 2798 3994, 010 8627 9945

2월 6일(토)
▲광주금당산악회 2월 6일(토) 국립공원 무등산, (집결지)-중심사 시내버스 종점 위 팔각정 09:00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2월 17일(수)
▲광주산사모산우회 2월 17일(수)~21일

(일) 베트남-하노이 하롱베이(1,130,000원), 영주체마트 주차장 10:00, 문흥동 청소년수련관 앞 10:30, 비엔날레 주차장 10:50, 문화예술회관 후문 앞 11:00 *다음카페 광주산사모산우회 ☎ 010 3603 8370, 010 3606 8081

2월 20일(토)
▲광주금당산악회 2월 20일(토) 근산 새만금 월영산-대각산 (시산제 점심제공), 진월동 식자재마트 앞 07:20, 영주체육관 07:30, 한국병원앞 07:40, 문예회관 후문 07:50, 비엔날레주차장입구 08:00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2월 21일(일)
▲빛고을무지개산악회 2월 21일(일) 부안 관음봉, 영주체육관 08:00, 학동.증심사입구지하철역 3번출구 08:20, 광주역 08:40, 문예회관후문 08:45, 동광주웨딩프라자 08:50 *다음카페 빛고을무지개산악회 ☎ 010 3620 2002

6월 3일(금)
▲광주한길산악회 6월 3일(금)~7일(화) 백두산 산행, 3일 광주 출발 01:00, 인천 공항출발 08:00 *다음카페 광주한길산악회 ☎ 010 9397 1720

투자자 모심!

■ 경/공매 낙찰물건 제1순위 근저당 설정 연 10% 이자 지급 상담후 결정

■ (주)오천정매 H.010-3605-5000

즐거운 영화 산책

LOTTE CINEMA | 총장로관

1관 그날의분위기
2관 몬스터호텔2/설특유령신부/바다의노래
3관 내부자들 : 디오리지널
4관 구스범스/굿다인노
5관 히말라야
6관 레버넌트/잡아야산다
9관 레버넌트/구스범스/굿다인노
7관씨네키움 예술루트리에니싱/그날의분위기
8관씨네키움 나를잊지말아요

단체 및 대관문의 : 070-4940-0523

MEGABOX | 하남점 메가박스

현재상영작
히말라야 레버넌트
굿다인노 오빠생각

내부자들 : 디오리지널
레버넌트 : 죽음에서 돌아온 자
나를 잊지 말아요 / 겹겹이 페달 / 구스범스

T 멤버십 동반 4인까지 2000원 할인
KTF, LGT 멤버십 본인 1000원 할인
현대포인트 1인 2000포인트씩
2인까지 4000포인트 사용
(현대카드로 결제시 적용)

단체 및 대관문의 : 1544-0070
누르고-6-6-1-4-9-4단계로 안내를 따라가며 누르세요

MEGABOX | 상무점 메가박스

1관 설특 : 유령신부
2관 레버넌트/히말라야/바다의노래
3관 레버넌트/예술루트리에니싱
4관 히말라야
5관 굿다인노/그날의분위기
6관 그날의분위기
7관 내부자들/정구는 못말려극장판
8관 나를 잊지 말아요
9관 내부자들 : 디오리지널/포인트브레이크
10관 구스범스

단체 및 대관문의 : 1544-0070
T 멤버십 동반 4인까지 2000원 할인